

남구청사 의류매장 입점 주민 갈등 비화

백운광장 상인번영회, 찬성 서명서 제출 무등·봉선시장 상인 “구청이 부추겨” 반발

광주시 남구 주월동 신청사 내 대형 의류 매장 입점을 둘러싼 남구와 상인들간 대립이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당장 수익에만 급급, 지역 영세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반발해온 봉선·무등 시장 상인들에 맞서 ‘백운광장 상인번영회’ 소속 상인들이 대규모 의류 매장 유치에 동조하면서 주민갈등으로 번진 것.

일각에서는 주민 갈등을 중재·해소해야 할 자치단체가 신청사 수익 창출을 위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청사 바로 옆 백운광장 상인들은 ‘백운광장 상가번영회’를 결성, 대규모 점포를 유치해 유동인구를 늘려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상인 170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영호 남구청장에게 제출했다.

이들 상인들은 대규모 점포 유치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인근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대규모 의류 매장 입점은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온 무등·봉선 시장 상인회와 상반된 입장이다.

무등·봉선시장 상인들은 지금까지 “남구청사 내 대규모 의류 매장을 임대해 주겠다는 것은 대기업과 대자본의 입맛에 맞추려는 꼼수”라며 “전국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전통상업보존지역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백운광장 상인들의 움직임이 전해진 뒤 무등·봉선 시장 상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중소기업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와 함께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에서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무모한 시도를 중단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구와 지역 중소기업 간 대립이 주민들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

로, 자치 조만간 예정된 공청회 등에서 주민 간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 갈등을 중재·해소하고 의견을 수렴, 대안을 마련해야 할 남구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앞두고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커녕, 남구와 같은 입장을 취한 ‘백운광장 상인번영회’의 서명서 제출 사실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적극 알리고 나선 것은 지나친 것이다.

남구의 한 재래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문제의 장본인인 남구가 오히려 상인·주민 갈등을 조장하며 여론몰이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학생들의 세관행정 체험

광주세관세관장 조훈규는 지난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체험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조선이공대학교 재학생 40여명을 초청해 세관행정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세관 제공>

수입 비타민C 국내가격 현지보다 최고 7배 비싸

비타민C 수입제품이 원산지과 비교해 최대 7배나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비타민C 제품의 가격을 비교조사한 결과,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생산국 현지 매장 판매가격보다 오프라인 매장은 평균 3.5배, 온라인 쇼핑몰은 평균 2.9배 높았다.

국내외 가격 차가 가장 큰 제품은 미국산 ‘솔가 에스터C 비타민 1000’ 제품으로 미국 판매가(이하 100g 환산 기준)는 1만952원이지만 국내 오프라인 매장 평균가는 7만7428원으로 미국 가격의 7.1배에 달했다.

이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도 평균 6만2548원으로 미국 가격의 5.7배에 달했다.

미국산 ‘GNC 슈퍼비타민C 500’은 미국 판매가 대비 국내 가격이 오프라인은 3.2배, 온라인 쇼핑몰은 3.1배 비쌌다.

국산 비타민C 제품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

‘고려의단 비타민C 1000’은 대형마트에서는 9892원에 팔리지만 뷰티헬스샵은 8602원, 약국은 7147원으로 약국이 가장 싼다. ‘경남제약 레모비타C’는 대형마트가 5200원, 약국이 3000원이었으며, ‘종근당 비타민C 1000’도 대형마트 7723원, 약국 4903원으로 약국이 저렴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출시

26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아심작인 대형 세단 ‘제네시스’의 2세대 모델이 출시됐다. 가격은 1세대 모델보다 230만~340만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농공상 우수 제품 특별판매전

내달 3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광주·전남 농공상 우수 제품 특별판매전’을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개최한다.

26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판로 확대 및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판매전에는 지역 우수 업체 24개가 참여한다.

참여업체는 올해 제19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1등 상을 받은 대전공방을 비롯해 허브·편백 껌질과 등심버용 건강제품을 생산하는 그린라이프, 전국 최대 황칠나무 재배단지를 직접 운영하면서 황칠전액 등 황칠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황칠코리아, 천일염을 특허공법으로 가공해 프리미엄 소금을 제조하는 풀잎에코식품 등이다.

또 참가를 없이 100% 과일 그대로 가공해 만든 과일칩을 생산하는 험시 BIF&B와 광주 최초의 이류식 브랜드 영·유아를 위한 먹거리를 생산

하는 하우스팜, 전통방식의 제조기법으로 도자기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비즈, 편백나무로 전자파가 없는 황토휴침대를 생산하는 온돌라이프, 올해 갓 나온 햇김과 웰빙 해조류를 판매하는 맛고을로하스푸드 등이 판매전에 이틀을 올렸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판매전에서 2400만원으로 매출 1위를 달성한 제일에스지가 참여한 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행사 총매출은 2011년 4100만원, 2012년 1억1700만원, 올 4월 1억32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동희기자 exian@>

내년부터 공공기관 ‘고용세습’ 없앤다

기획재정부, 대학생 자녀 학자금·안식년 혜택도 금지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자녀에게 취업시 혜택을 주는 ‘고용세습’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다음주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관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에선 고용세습을 단행해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가족에 채용에 혜택을 준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지만, 일부 기관은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나 심지어 정년퇴직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보낸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용자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선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여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직원 대학생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도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의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장기근속자가 1년을 쉬면서 월급을 받는 ‘안식년’ 제도를 운영했다.

정부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 임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고 기관장 해임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성모 한국스치로폴 대표 동탑산업훈장

35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김성모 한국스치로폴 대표이사가 최근 열린 제35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홈 제로하우스’ 사업을 이끌며 에너지절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린홈 제로하우스는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단열·창호 기술 등을 적용해 건물 유지에 에너지가 전혀 소요되지 않도록 설계된 친환경 주택으로 한국스치로폴은 이 사업의 시공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단열재 ‘인슈블록’을 사용, 최대 7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뒀다.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김 대표는 “한국스치로폴의 인슈블록을 설치한

150동의 건물이 절약한 연간 에너지비용은 3억 원 이상이다”며 “인슈블록을 전국 에너지 빈곤층인 150만 동에 적용한다면 연간 160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비용을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이사는 또 “단열기술만으로 여름철 냉방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스치로폴은 지난 5년 동안 약 150동의 건물에 인슈블록을 설치 시공했으며 주민센터, 보건진료소 등 넓은 면적의 건물에도 같은 공법을 도입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시 화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 소비심리

10월 비해 소폭 상승

광주·전남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소폭 상승했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전국 107)으로 전달과 비교해 2포인트 늘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91로 전달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생활형편전망CSI도 전달에 비해 1포인트 하락, 96을 기록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9로 전달에 비해 3포인트 증가했다. 소비지출전망CSI 역시 3포인트 상승 111로 집계됐다.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CSI는 83으로 전달과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코스피지수 2022.64 (+6.66)	▲ 코스닥지수 510.54 (+2.78)	▼ 금리(국고채 3년) 2.96% (-0.01)	▼ 원·달러 환율 1059.90원 (-2.00)
----------------------------	---------------------------	-------------------------------	-------------------------------

“프리미엄 빌라의 새로운 기준” **미림빌** 선착순 분양중!

즉시입주

- 최고급 도시형 생활주택
- 최고의 전망과 학군
- 엘리베이터 설치
- 친환경 편백나무 시공
- 최고급 인테리어 시공
- 고급 가스오븐렌지·식탁 설치

1층 주차장	2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4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3층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5층 A타입 33평 2세대 B타입 28평 2세대	

분양문의 011-611-1288 · 062-372-1607 해남 동초등학교 후문 앞(성동리회관 옆)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 등
전통한복 맞춤형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무례주류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